

기초단체장 격전지 수두룩...민주 vs 혁신·무소속 '대혈투'

6·3 지방선거 D-41

광주·전남 시장·군수·구청장 대진 운곽
27개 선거구 중 10개 안팎 경쟁 치열

동구, 8년만에 전·현직 청장 '리턴매치'
보선 승리 혁신 담양 재선 여부 관심
목포, 전직 귀환 vs 새얼굴 표심 촉각

순천·강진 '무소속 4선' vs '민주 탈환'
여수, 민주 후보 미정 속 혁신 존재감 ↑
진도, 민주 제명 현직 민심 변화 변수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최대 관심사였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이 마무리되고 광주·전남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대진표 역시 운곽을 드러냄에 따라 지역 유권자들의 이목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2·3·4면

특히 광주·전남 27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1/3이 넘는 10곳 안팎이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덧발' 탈환을 목표로 한 민주당 후보와 '수성'에 나서는 조국혁신당·무소속 현직 단체장 간 사활을 건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 동구청장 선거는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8년 만에 전·현직 구청장 간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현직인 민주당 임태 후보와 전직 청장인 조국혁신당 김성환 후보가 맞대결한다. 현직 프리미엄과 조직력을 앞세워 3선에 도전하는 임



“地選 꼭 참여하세요” 6·3 지방선거가 42일 앞으로 다가온 22일 오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민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가 담긴 홍보 플래카드를 외벽에 걸고 있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조영권 기자

후보와 과거 구청 경험을 바탕으로 설욕전에 나선 김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담양군수 선거는 조국혁신당 1호 자치단체장인 정철원 후보의 재선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정 후보는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꺾고 당선돼 재선을 노리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박종원 전남도의회원이 후보로 확정돼 바다 민심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목포시장 선거의 경우 박홍을 전 목포시장(민

선 6·8기)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돼 불명예 퇴진한 뒤 조국혁신당에 입당, '징검다리 3선'에 도전한다. 민주당에선 3선 목포시의원과 재선 전남도의회를 지낸 강성휘 후보가 탄탄한 조직력·의정 경험을 앞세워 본선을 준비하고 있다.

순천시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현직 시장인 노관규 후보의 '징검다리 4선' 성공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노 후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손

훈모 후보, 진보당에서는 이성수 후보가 진검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여주시장 선거는 조국혁신당 명창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전남도 행정부지사 지낸 명 후보는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첫 선거 도전임에도 경쟁력을 입증하며 주목받고 있다.

향후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서느냐에 따라 판

세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일찌감치부터 표밭 갈기에 주력하고 있는 명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진군수 선거는 무소속 현직 군수와 민주당 현직 도의원 간 맞대결로 치러진다. 현직인 강진원 후보는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며 '징검다리 4선'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치열한 경선을 거쳐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재선 도의원 출신 차영수 후보가 새 인물론과 당 조직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곡성군수 선거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 조상래 후보와 조국혁신당 박용두 후보 간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던 현직 조 후보는 조직력과 지역 기반을 토대로 수성을 자신하고 있다. 보궐선거 당시 30%대 득표율을 기록한 박 후보는 '기본소득 키움사람'이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워 설욕을 노리고 있다.

진도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재재 후보에 맞서 '베트남 여성 수업' 막말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 출마한 현직 김희수 후보가 격돌한다.

김 후보가 '행정 연속성'을 강조하며 재선 도전에 나섰지만 막말 논란 여파가 선거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충북지방병무청장을 지낸 이 후보는 김 후보의 막말 논란에 따른 민심의 변화를 파고들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 후보와 혁신당·무소속 후보 간 초접전 양상이 예상된다"며 "특정 이슈나 후보 개인 경쟁력이 부각되는 지역은 막판까지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재홍·변은진 기자

'아기 울음소리' 늘었다...지역 출생아 수 증가세 뚜렷

국가데이터 '2월 인구동향'

올해 2월 광주·전남 출생아 수가 1년 전 동월 대비 각각 18.8%, 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 소멸 위기 속에 희망의 신호탄을 쏘았다.

22일 국가데이터가 발표한 '2026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출생아 수는 각각 587명, 7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494명·673명)보다 각각 18.8%, 14.2% 증가한 수치다.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2월 기준으로 지난 3년간 2023년 588명, 2024년 563명, 2025년 494명으로

광주 587명·전남 769명 출생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8.8%·14.2% 증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3년 만에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광주 출생아 수는 2022년 7천46명에서 2023년 6천172명, 2024년 6천34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6천507명으로 반등하며 장기화되던 감소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남의 출생아 수 증가세는 광주보다 더 가파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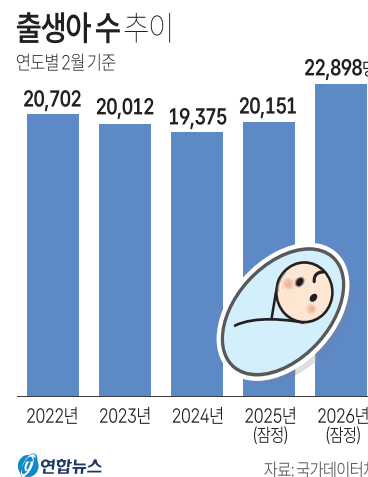
전남의 2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23년 674명, 2024년 686명, 2025년 673명으로 등락을 반복해왔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2023년 7천888명에서 2024년 8천225명, 지난해 8천731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기록한 9천738명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도 출생아 증가 흐름이 뚜렷하다. 2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2천886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천747명(13.6%) 증가했다.

이는 2019년 2월(2만5천71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증가율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증가 폭(2천747명)도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



로 과거 최대 증가 폭은 1990년 5천41명이다. 출생아 수는 증가 흐름을 이어가며 2024년 7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20개월 연

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혼인과 이혼 건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2월 광주지역 혼인 건수는 45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519건보다 68건 감소했고, 이혼 역시 208

건에서 152건으로 56건 줄었다.

반면, 전남의 혼인 건수는 같은 기간 602건에서 617건으로 15건 증가했으며, 이혼은 209건에서 251건으로 18건 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광주·전남 모두 이어졌다.

광주·전남의 2월 사망자 수는 727명·1천588명으로 모두 출생아 수를 웃돌며 각각 140명·819명의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연태호 기자

Today

보험사기,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나선다 6면

인물열전-김남로의 주인공 '정충신' 14면

'흔들림없는 필승카드' 성영탁의 재발견 16면

(주)송천

전기공사업 · 신재생 에너지기업 · 태양광 발전 시공/인허가

태양광 완벽 시공 기술...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한다

(주)송천은 건물 태양광 발전과 농촌 태양광 발전 등을 시공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입니다. 지난 2014년 설립해 10여년 이상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이어와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매출 100억원을 달성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과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승환 대표이사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에 위치한 (주)송천 전경

(주)송천

본 사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322 2동 1층
광주시사무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16-2(월출동 971-39, 2층)

TEL. 062) 972.1527 / H.P. 010.9882.2405